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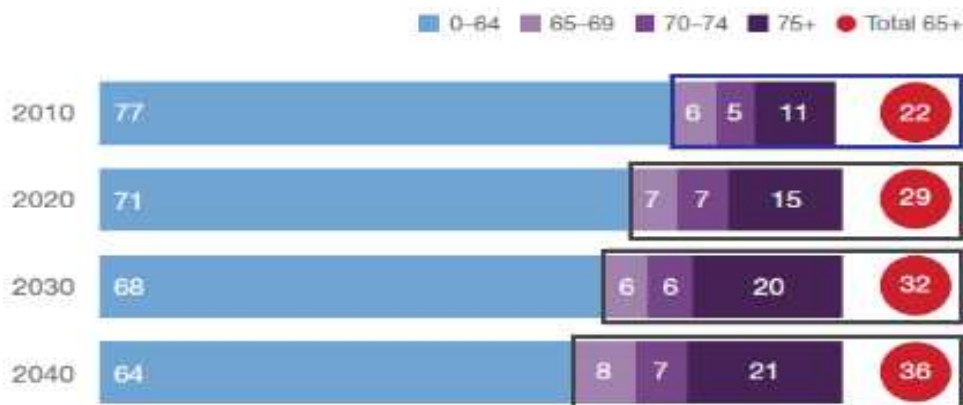
일본 기업들의 고령화 대응방안

김현경 연구원

■ 일본 기업들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틈새시장 창출 및 고령 노동력 활용 등 고령화 극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.

- 일본은 2013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%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6%로 전례 없는 고령 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인구 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¹⁾
- 일본 기업들은 증가하는 고령층을 소비주체로 인식하여 고령층에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함.
-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 함.
 - 지속적으로 1%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매년 1.2% 향상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 노동인구는 6,200만 명이 필요하나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노동인구는 이에 비해 21%나 적은 4,9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 우려

〈그림 1〉 일본의 연령별 고령인구 비율(%)



자료: Mckinsey Quarterly(2015. 3), "Japan: Lessons from a hyperaging society", 재인용.

1)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.2%이며 2040년에는 32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■ 일본의 기업들은 고령층을 타겟 고객으로 한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.

- 기업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보완해 주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.
 - 아이유미 슈즈는 엉덩이와 무릎 보호는 물론 미끄럼 방지를 고려하여 디자인한 토쿠타케신발 제품을 출시
 - Benry는 에어컨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집안일 서비스를 제공
 - 세븐일레븐과 Watami 음식점은 각각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, 수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년층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.
- 고령층들의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.
 - Kozocom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취미 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
 - Club Tourism은 고령층을 위해 사진 및 역사기행을 주제로 한 여행 상품 제공
 - 건강검진 회사들은 일일케어 서비스, 문화 강좌, 피트니스 클럽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고령자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연령대와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음.
 - 피트니스 체인 Curves International은 연령별로 차별화하지 않고 노령자들의 활력과 젊음을 강조한 마케팅 덕분에 성공을 거둠.

■ 기업들은 고령인구 활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.

- 고령 노동력 활용을 위해 고령자들의 근무형태를 유연화하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.
 - 일본의 카고메사와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는 60세~62세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와 파트타임형태로 고용
 - 미쓰시사의 퇴직자들은 창업자들에게 영업, 마케팅 전략 등 다방면에 걸친 실전경험을 전수하는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제공함.
- 향후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 및 실버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고령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임.
 - 일본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5년에는 250만 명의 간병 인력이 필요할 것

- 으로 예상²⁾되고 있으며, 따라서 부족한 인력 문제를 고령 노동력으로 해결하고자 함.
- 고령자들은 주로 전문기술과 체력적 요구가 크지 않은 세탁물 관리, 단순 간병 등에 종사할 것으로 보임.

-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 및 기업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.
-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들의 노동력, 구매력, 경험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(Mckinsey 등)

2) 일본 후생노동성(Ministry of Health, Labour, and Welfare).